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포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에제 33,7-9

화답송 | 시편 95(94),1-2.6-7ㄱㄴㄷ.7ㄹ-9(◎ 7ㄹ과 8ㄴ)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엮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 13,8-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8,15-20

영성체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성가 | 입당 28 예물준비 237(215)
영성체 153(154) 파견 283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김옥지 아가다 영원한 안식
- 박성길, 여성순 영혼을 위하여
- 이성례 벨라뎃다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 이원무 윌리엄

생미사 지향

- 성령기도회원들의 영육건강
- 이장학 토마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 김리나 막달레나의 건강을 위해
- 선택 주말 참가자들과 봉사자들
- 김애희 테클라 영명축일

오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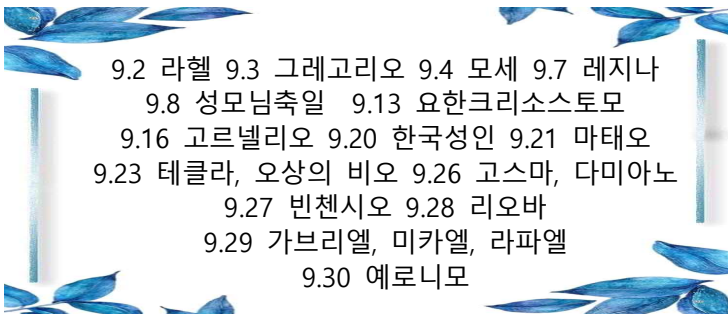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 18,19)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9월 6일	백이백	민완준	민덕미	민완준 민덕미	김종선 진서윤	이예진 김민서
9월 13일	정유진	정은철	이경자	정은철 이경자	이정현 백이백	김도율 조혜원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소성전(아래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9월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5년 하반기 주일학교 개강

일시: 9월 13일(주일) 11:00-11:50AM

대상: 주일학교 유치부, 초중고 전 학년

아이들의 주일학교 활동이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9.11 희생자를 위한 본당 추모 미사 일정

25주년을 맞이하는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많은 기도와 미사 참석 부탁드립니다. 9/11(금) 5:30PM 미사는 특별히 한국인 희생자들을 위해 봉헌됩니다.

대성당	10:30 AM	12:30 PM (지향:소방대원)	5:30 PM (지향: 한국인 희생자)
아래성당	7:30 AM	12:00 PM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예물 봉헌

9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과 부모, 형제, 친척, 은인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는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양식서>를 작성하고 접수(연령회)하시기 바랍니다.

- 합동위령미사 : 9/20(주일) 9:15, 대성전

- 미사 후 공동체 한가위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2026년 청년성서 가을학기 모집

(주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 받은 청년

신청 마감: 9월 13일(주일)까지

첫모임: 9/27(주일) 12:00PM, 프란시스코

문의: 714-809-9874, 카톡 sunwouk

(대표봉사자 유선옥 베로니카)



수녀님과 함께 하는 54일 묵주기도

: 3차 마침모임 & 4차 시작모임

제3차 '54일 묵주기도' 마침 모임 및 4차 54일 묵주기도 시작 모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묵주기도 첫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후 개별로 기도합니다.

(*기도 기간 동안 감시기도 시작/마침에 모임 예정)

일시/장소: 9/13(주일), 12:00PM, 소성전(준비물: 묵주)

'푸른 올리브' 찬양기도회

"나는 하느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라.

영영세세 나는 하느님의 자애에 의지하네."(시편 52,10)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9월 26일(토), 4:00-5:00PM, 아래성당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예비자 교리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10월 4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13(주일)- 2027년 3/28(주일)

첫모임: 9/13(주일) 1:00PM-2:30PM, 프란시스코

신청 방식: 신청서 신청/제출(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강이 시몬

(1765?-1815)



‘여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김강이(金鋼伊) 시몬은 충청도 서산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장성한 뒤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입교한 뒤에는 재산과 종들을 버리고 아우 김창귀 타대오의 가족과 함께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하였다. 1795년 초 여름 고산을 방문한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성사를 받고 교리를 배웠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지도층 신자로 지목되어 1년 동안 피신하였는데, 이때 그의 아내는 체포되어 1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박해가 끝난 뒤에는 등짐 장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다 경상도 진보 머루산(현 경북 영양군 석포면 포산동)에 교우촌을 일구었고, 이후 여러 곳을 거쳐 강원도 울진에 정착하였다. 1815년 을해박해 때 옛 하인의 밀고로 아우 김창귀 타대오와 조카 김사건 안드레아와 함께 체포되어 안동에 수감되었다. 이후 아우와 함께 원주로 이송되어 여러 형벌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다. 사형 선고를 받고 조정의 윤허를 기다리던 중 형벌의 상처와 이질로 쇠약해져 1815년 12월 5일(음력 11월 5일) 옥사하였다. 당시 나이는 50세 이상이었다.

성화-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99, 가해, 2026. 09.06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에비뉴-메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2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필러,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PETIQUE SALON
DOG GROOMING · DAYCARE · BOARDING

Petiquesalon@gmail.com

강동호 베드로
917-419-7444
444 2nd Ave, New York, NY 10010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메디슨-파크 사이)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자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nn@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물물)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i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



다시 만난 신약 성경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로마서는 바오로 사도가 차분하게 교리와 여러 가르침을 정리해서 쓴 글이라면, 코린토 1서와 2서는 주로 코린토 공동체의 문제들 때문에 썼던 편지들입니다. 신약성경에 들어 있는 두 편지 외에도 바오로 사도는 다른 편지들을 코린토 교회에 보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린토 2서에 가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어쨌든 코린토 교회는 파란만장한 문제들을 겪었던 듯합니다.

코린토 1서의 앞부분에서 무엇보다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바오로 편, 아폴로 편, 케파 편, 그리스도 편이라고 내세우면서 무리를 지어 갈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바오로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바오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 머물면서 주변에 지지자들을 모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신자들은 이런저런 이름들을 내세우며 갈라졌습니다. 좀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같은 정당 안에서도 끝없이 갈라지는 요즘의 정치인들을 떠올리면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10)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모임이든지 사람들의 모임에서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겪어 본 순전히 인간적인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다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다 착한 경우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화합을 추구할 때입니다. 이런 일치도 있기는 한데,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는 확실한 중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도 어떤 중심이, 또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신자들의 일치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나타납니다. 한편으로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지혜롭다거나 힘이 있다고 내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학자나 세상의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물을 내세우거나 스스로 잘났다고 주장하면서 나서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을 선택하시어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1,29). 그리고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2,2)만을 구원의 길로 세우셨습니다.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나 힘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어리석고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25). 스스로 지혜롭고 힘이 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전쟁과 분열을 일으킬 뿐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할 때, 일치와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길이 지혜로운 길인지, 하느님이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97, 2026. 08월 23일

“St. Francis's influence on INTERFAITH Relationship”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회년
본당공동체 1일 피정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회년을 맞아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순례 피정을 마련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되어 함께 가는 영적 순례에 한인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17(토), 8시 출발(32번가 단체버스)-3시 귀가

장소: Graymoor Retreat Center Garrison, NY

신청비: \$75(버스비+간식+점심 포함)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사무동 데스크

문의: Fr. Brian, tel 212-736-8500 ext. 232

bjordan@stfrancisnyc.org

< 이탈리아 성지 순례 >

주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 일시: 2026년 11월 2일 ~ 11일 (9박 10일)

* 순례지: 이탈리아

(로마-리에티-아씨시-라베르나)

* 영적 지도: 이웅희 루카 신부님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비용: \$ 3,000 + 항공료 + 공동경비 € 100